

비비씨, 코스닥 상장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 ▶ 테이퍼 소재 기반 국내 No.1 덴탈케어 전문기업
- ▶ 칫솔모 시장 압도적 점유율 확보
- ▶ 멜트블로운 필터여재 및 보건용마스크 등 소재 영역 확대로 기업 가치 ↑

<2020-08-10> 미세모 소재 기반 덴탈케어 전문기업 '비비씨'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비씨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1,200,000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27,100원~30,700원이다. 총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325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과 3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달 9일과 10일 청약을 실시해 9월 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2008년 설립된 비비씨는 테이퍼 소재를 기반으로 미세 칫솔모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유일의 테이퍼 소재 개발을 통해 품질력을 인정받았으며, 명실상부 국내 No.1 덴탈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테이퍼모는 국내 시장에서 미세모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비씨의 고분자 방사 및 가공 기술을 적용, 우수한 침투력과 뛰어난 오염 제거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나일론 소재의 대체제로 빠르게 부상하며 칫솔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비비씨는 테이퍼모 시장 점유율 약 80%를 기록하는 등 이미 국내 칫솔모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전동칫솔 부분 글로벌 1위 기업 피앤지를 비롯해, 글로벌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업하며 동반성장 체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비비씨의 탄탄한 사업 역량은 경영실적으로 증명된다. 2019년 매출액 310억 원을 기록, 2018년 대비 16.8% 상승하며 외형성장을 달성한데 이어, 영업이익 76억 원(YOY 492%↑), 이익률 22.5%라는 높은 수익성까지 창출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73억 원, 49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선보인 보건용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며 신규 매출원으로 가세, 또 한 번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비비씨 강기태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비씨의 칫솔모를 사용할 정도로, 비비씨 제품은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며 "주력 비즈니스인 덴탈케어 사업 외에 원천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접목해 뷰티케어는 물론, 에어필터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헬스&뷰티케어 전문소재 기업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